한우협 · 주홍콩총영사관, 한우 홍콩수출 확대 업무협의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와 주홍콩총영사관(총영사 김광동)은 3월 17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우의 홍콩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의를 가졌다.

김광동 주홍콩총영사는 홍콩 내 한우의 소비자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말하며 "한우의 위상이 일본을 앞지르고 있어 앞으로 중요관건은 품질과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며 "아울러 앞으로 홍콩에 이어 마카오까지 한우 수출시장을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홍콩 내에서 한우를 견제하기 위해 호주산 와규의 가격인하가 시행되고 있지만, 한우가 최고급 브랜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고급 컨셉으로 품질 좋은 물량을 공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홍콩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한우의 맛과 우수성을 잘 홍보해 주길 부탁하며 "총영사는 수출 초기 저품질 · 덤핑가격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생산자인 한우협회를 중심으로 수출협의체 등 컨트롤 타워를 구성 · 운영하여 철저한 관리를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한우협회와 주홍콩총영사관은 10월 홍콩 국경절날에 한우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방안도 협의하며 홍콩 시장 내 한우 홍보 및 수출 물량 확대에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라이브뉴스 곽동신 기자 [2016. 03. 18]

한우협, 국제축산박람회 주관단체로 선정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가 한국국제축산박람회(KISTOCK)를 주관하게 됐다.

2015년 박람회를 주관했던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는 지난 3월 3일 제2축산회관 지하 회의실에서 사업종료에 따른 박람회 이월금 및 관련문서 등 행사관련 업무 일체를 차기 주관단체인 한우협회에 전달했다.

이로써 한우협회는 내년에 열리는 한국국제축산박람회를 주관하기 위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김홍길 한우협회장은 "차기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행정 · 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 대한민국 축산업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행사로 운영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2016. 03. 09]

한돈자조금, 2016 한돈 홍보대사로 걸그룹 AOA 선정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규)는 지난 3월 8일 걸그룹 AOA를 홍보대사로 선정하고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홍보대사 위촉장과 위촉패를 수여 받은 AOA는 앞으로 광고를 비롯한 각종 행사에 참여해 우리돼지 한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서게 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AOA 리더 지민은 "밥상 위의 국가대표 한돈의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우리돼지 한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다 많은 이들에게 한돈을 알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OA 멤버 설현 역시 "앞으로 우리돼지 한돈의 홍보대사로서 우리돼지 한돈의 맛과 영양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이병규 위원장은 "AOA가 지금까지 보여준 밝고 건강한 이미지가 한돈의 건강한 맛과 영양을 알리는 데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해 한돈 홍보대사로 선정하게 됐다"며 "앞으로 AOA 일곱 명의 멤버 모두가 한돈의 대표 얼굴로 우리 돼지의 한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낙농육우협회, 2016년도 제1차 K-MILK 인증위원회 개최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3월 21일(월) 축산회관 회의실에 2016년도 제1차 K-MILK 인증위원회(위원장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를 개최하고 1/4분기 K-MILK 인증을 심의, 의결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7개사 44개 국산 우유 · 유제품이 인증을 받아, 총 16개 유업체 320개 국산 우유 · 유제품, 커피업계 1개사로 K-MILK 외형이 확대되었다.

인증위원들은 K-MILK는 낙농업계의 큰 희망이라며, 제빵업계 등 K-MILK 분야 확대, 지속적인 소비자 대상 홍보, 중국수출 공동마케팅 방안 마련을 인증기관인 낙농육우협회에 주문하였다.

취임이후 첫 인증위원회에 참석한 이승호 회장은 국산우유, 유제품이 해외에서도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유업계의 동참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이회장은 2012년 재임시절 K-MILK 사업을 구상할 당시 중국수출 공동마케팅을 비중 있게 준비했다며, 인증, 홍보, 중국수출 공동마케팅 삼박자를 갖춘 사업으로 내실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토종닭협, 중개상 중심 자율방역체계 구축 추진

한국토종닭협회(회장 김근호)가 정부 방역정책에 의거해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각 축산위생연구소 등 방역기관과 공동으로 '가금중개상 중심의 자율방역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토종닭협회는 지난 3월 11일 경기도에 위치한 모란시장 내에서 가금중개상을 신청한 유통상인 13명에 대한 차량 및 계류장에 대한 첫 검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한 가축 거래내역, 소독실시 기록 등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등에 대해 교육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방역체계는 농가와 산닭 판매소 사이에서 토종닭을 유통 · 판매하는 거래상인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고병원성 혹은 저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빠른 역학조사를 통해 수평전파 차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생축을 싣고 다니는 유통차량과 계류장에 대해 정기적으로 환경시료 채취 및 검사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방역 계도 및 지도로 방역체계를 갖추기 위함이다.

아울러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가금거래상에 대해서는 AI 검사를 마쳤음을 인증함으로써 배타적인 영업이익을 갖게 된다.

김근호 회장은 "토종닭 사육농가를 비롯해 관련된 곳까지 철저한 차단 방역으로 AI 등 가축질병 발생 차단에 앞장서겠다"며 "정부에서 걱정하는 산닭시장은 가금중개상 인증제를 통해 유사시 빠른 역학조사가 이뤄지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총 74명의 가금중개상이 인증제를 신청한 상태며 각 지역의 방역당국과 조율해서 유통상인 및 계류장의 검사를 통한 인증을 추진 ·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가금중개상 중심의 자율방역체계'는 지난해 7월 정부에서 관련규정을 마련했으나, 9월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잠정 연기된 바 있다.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2016. 03. 16]

축단협, 총선 축산정책 공약 요구사항 각 정당에 전달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4 · 13 총선 관련 축산업 정책 공약 요구사항'을 확정하고 이를 최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각 정당에 전달했다.

축단협의 요구사항은 FTA 실질대책 수립을 기본으로 한 5대 공통 요구사항과 한우 · 한돈 · 낙농 · 양계 등 각 축종 단체별 요구사항이 담겨 있다. 이 가운데 공통 요구사항의 내용은 △축산식품 안전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일원화 △농신보 보증 상향조정 및 정책자금 금리 인하 △도축검사 제도 개선 △국내 농축산물의 '부정청탁금지법' 금품대상 제외 △농협 경제지주 이관 후 축산부문의 전문성 · 자율성 보장 등이다.

축단협 관계자는 "지난 2014년의 한 · 영연방 FTA, 지난해 한 · 중 FTA 여야정 협의체 합의문 이행과 실효성이 미비하다고 판단해 올해 총선 관련 축산업 정책 공약 요구사항을 전달하게 됐다"며 "이와 함께 내년 대선까지 실질적인 FTA 대책 수립을 위해 대정부 및 대국회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2016. 03. 18]

양봉협회 세종시지부, '시민과 함께 하는 체험 양봉장' 참가 희망자 모집

한국양봉협회 세종시지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동면 태산로 71-82 인근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체험 양봉장'을 운영키로 하고, 4월 29일까지 참가 희망자를 모집한다.

4~8월 운영될 양봉장은 지난해(65명)보다 35명 많은 100명이 참가할 수 있다. 참가비는 28만5천원이나, 세종시가 10만원(35%)을 보조하기 때문에 실제 자부담은 18만5천원이다.

양봉협회에 따르면 밀원(蜜源), 날씨 등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올해 1명 당 생산 예상량은 꿀 약 15kg, 화분(꽃가루) 약 1kg(약 35만원 상당)이다.

양봉협회 관계자는 "참가자들에게 양봉 교육을 거쳐 생산한 벌꿀을 모두 배분하기 때문에, 1명 당 실제 부담액보다 16만5천원(89.2%)어치를 더 가져가는 셈"이라고 말했다.

충북일보 최준호 기자 [2016. 03. 23]

축산자조금연합, 축산농가 행동강령문 제작 · 배포

축산자조금연합이 국민과 상생하는 우리축산을 위한 대한민국 축산농가의 실천의지가 담긴 '축산농가 행동강령문'을 제작 · 배포했다고 3월 24일 밝혔다.

이번 행동강령문은 지난해 자조금연합이 개최한 '국민소득 3만불 시대, 공감축산 이렇게 하자' 워크숍에 대한 결과물로써, 한돈 · 한우 · 낙농 · 가금류(육계, 양계, 산란계, 토종닭, 오리) · 육우 · 양봉 · 사슴 등 11개 축종별로 제작되었으며 협회 및 자조금 대의원을 중심으로 배포됐다.

지난 6월과 9월, '안전한 축산식품 생산'과 '축산환경 개선'을 주제로 2차례의 워크숍이 개최되는 동안 안전 축산물과 친환경 축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축산물 생산자로서 사회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자 축산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지침을 담은 '축산농가 행동강령'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자조금연합은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함께 고품질 축산물 생산, 생산성 향상, 질병 청정화, 친환경 축산, 사회공헌 등의 내용이 담긴 5대 공통강령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축종별 강령을 수립하였으며 대내외적으로 행동강령을 선포하고 축산농가의 실천의지를 다지고자 지난 12월 '국민과 상생하는 축산농가 행동강령 선포식'을 개최했다.

자조금연합의 이병규 회장은 "축산농가 행동강령문은 법률적, 제도적인 규범을 떠나 대한민국 축산농가에 부여된 책임과 의무수행에 대한 자율 의지를 굳건히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축산농가 행동강령문'의 배부를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해당 축종 협회 또는 자조금관리위원회로 연락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뉴스투데이 [2016. 03. 24]